

環境大學院의 回顧와 展望(Ⅰ)

—環境計劃學科—

林 岡 源*

目 次

- | | |
|---------------|------------|
| I. 環境計劃學科의 歷史 | III. 卒業生實態 |
| II. 教育內容 | IV. 將來展望 |

I. 環境計劃學科의 歷史

現在の 環境大學院은 그 前身인 行政大學院의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에서 起源된다. 우리나라는 1960年代以後 急激한 經濟成長과 都市化 過程에서 都市 및 地域計劃의 問題가 새로운 課題로 등장되었다. 急激한 社會變動에 따라 대두되는 이러한 問題를 보다 專門的으로 다룰 수 있는 高級人力의 必要性이 切實하였고, 外國의 先例를 따라 우리나라에도 都市化에 따른 諸問題를 理論的으로 接近할 수 있는 高等教育課程의 設立이 要請되었다.

이러한 社會的 要求에 부응키 위해 1968年 1月 1日자로 서울大學校 規則 第104號에 의거 行政大學院 學則 第3條를 改正하여 行政大學院內에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定員 50名)를 設置하였다. 新入生은 1968學年度 부터 모집하였으며, 교수연구와 강의실건물로서는 鍾路區 東崇洞 199番地에 所在한 延建坪 100坪의 木造建物인 行政大學院 別館을 使用하였다.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의 創設을 위해 노력하신 분으로서 길이 기억되어야 할 분으로는, 當時 行政大學院 院長으로 계셨던 李漢彬 博士와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의 初代 主任教授로 被任된 盧隆熙 博士, 그리고 本 創設學科의 專任教授로 法科大學에서 발탁되어 오신 權泰坡 教授와 助教職을 맡은 崔相哲 教授 등 4분을 들 수 있는데, 이분들은 不撤晝夜로 產婆로서의 努苦를 아끼지 않으셨다.

1970년 2월 26일에는 대통령령 제4671호 교육법시행령 제123조의 개정으로 우리나라 석사학위분류에 있어서 도시계획학석사(Master in City Planning)가 추가되었다.

行政大學院의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에서 環境大學院으로의 獨立은 1973년 1월 25일 대통령령 제6476호,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5조의 개정에 의하여 이룩되었다. 環境大學院의 창설과 동시에 새로이 造景學科를 定員 40名으로 新設하였고, 從來의 行政大學院 「都市 및 地

*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環境計劃學科 學科長·副教授

域計劃學科]의 定員 80名을 흡수·합병하여 총학생정원 120명의 專門大學院으로 發足하였던 것이다.

1975년 3월 10일에는 서울대학교 설치령 개정으로 본대학원의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는 環境計劃學科로, 造景學科는 環境造景學科로 學科名稱을 變更하게 되었다. 이처럼 學科名稱을 變更한 것은 獨立機關으로서 環境大學院의 創設趣旨를 살려서 從來의 都市 및 地域計劃問題뿐만 아니라 人間環境에 관한 問題까지 보다 광범위하게 關心領域을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1975년에는 서울大學校 綜合化計劃의 實現에 의하여 環境大學院의 位置는 鍾路區 東崇洞에서 現在의 冠岳캠퍼스로 移轉되었다. 冠岳캠퍼스에서 環境大學院의 位置는 當初 現在의 行政大學院이 있는 9棟 3層에 配置되었으나, 1年後인 1976年 1월에 다시 現在의 13棟 2層으로 옮겨 앉게 되었다.

한편 環境計劃分野의 專門家에 대한 社會的 需要는 本大學院에서 教授하고 있는 教育의 質과 社會的 要求에 따라 進出領域이 꾸준히 擴大되어 왔다. 이러한 環境教育의 量的 需要를 充足시키기 위하여 學生定員을 1979學年度에는 140名, 1980學年度에는 180名으로 增員시켰다.

그러나 環境計劃分野專門家を 위한 教育은 그동안 碩士水準에 치중되어 온 결과 보다 專門化된 高級人力의 教育課程의 必要性이 國內外的으로 切實해 졌으며, 이러한 環境分野의 教育趨勢와 需要에 부응하기 위하여 1981年 11月 25일에는 環境計劃學科에 博士課程을 設置하였다.

環境計劃에 관한 教育課程의 發展過程에서 또한가지 特記할만한 事實은 1981學年度 부터 導入된 專攻制概念이다. 環境計劃教育課程의 設置以來 그동안의 教育方針은 計劃(planning)이 對象으로 삼고 있는 人間의 全體性(totality)과 이를 위한 綜合科學的(interdisciplinary) 方法論의 習得 即 一般計劃家(general planner)의 養成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都市化와 産業化의 深化로 야기되는 최근의 많은 問題는 이제까지의 一般計劃家의 水準을 훨씬 넘어 專門計劃家(special planner)의 수요를 더욱 높이게 되었다. 環境計劃教育에 있어서 이러한 專門化傾向은 우리보다 半世紀以前에 教育課程이 始作된 西歐大學에서는 오래전 부터 이미 定着되고 있는 實情이기도 하다.

이처럼 한발앞서 나아가는 環境計劃教育의 發展方向을 展望하고 또 그동안 우리나라에 새로운 學問領域을 導入·消化시킨 10餘年의 教育課程을 自體評價하여 새로운 試圖로서 環境計劃教育의 專攻制를 確立하기에 이르렀다.

1981學年度부터 始作한 環境計劃學科 碩士課程에서의 專攻領域은 크게 5個分野로 區分되는 바 다음과 같다.

- 地域開發專攻

- 都市管理專攻
- 環境管理專攻
- 交通計劃專攻
- 都市設計專攻

이러한 專攻領域에 따라 教科課程을 系列化하고 學生들로 하여금 各者의 教育背景과 適性에 따라 適合한 專攻을 擇하도록 함으로써 計劃教育의 深度를 높이면서 또한 專門教育을 強化토록 追求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環境大學院으로 獨立된 以來 現在까지 機關長의 變遷상황은 1973. 4. 12부터 1978. 10. 22까지 盧隆熙教授가 院長職을 역임하셨고, 1978. 10. 23부터 現在까지 權泰堧院長이 역임하고 계시다. 한편 專任教授의 數는 創設當時 3人教授로 부터 1983年 3月 現在 13人教授로 增加되었다.

1968年「都市 및 地域計劃學科」開設 當初부터 가장 큰 어려움은 教授陣의 確保였다. 教授要員長期養成計劃을 수립하는 한편 Asia Foundation과 USAID의 도움을 받아 第1次로 1968년에 崔相哲外 1人을 MIT와 University of Pittsburgh에 보냈으며, 第2次로 1969년에 金安濟外 1人을 各各 University of Cincinnati와 Syracuse University에 보냈다. 이러한 長期教授要員 養成期間의 空白을 메꾸기 위하여 1968年 부터 1970년까지 外國人 教授陣에 많이 依存하지 않을 수 없었다. 計劃理論에 T. Carim, 交通計劃에 Tombre, 公共施設計劃에 H. Walker등 諸氏들의 貢獻이 컸다고 보여진다. 1970년부터 長期的 教授要員 養成을 위해서 林岡源, 金炯國 등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 第1回 卒業生들이 主軸을 이룬 海外派遣이 이루어졌다. 1968年 以來 海外에 보낸 教授要員이 1972年을 前後로 하여 歸國하게 됨으로써 어느정도 自體 教授要員을 확보하는 한편 계속하여 派遣과 歸國이란 波狀的인 過程이 1975年까지 持續되었으며 1976년부터 教授陣에 관한한 比較的 安定的 體制를 갖추고 教育에 임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1983年 3月 現在 本大學院 環境計劃學科의 教授現況은 <表-1>과 같다.

<表 -1> 環境計劃學科 教授現況

教 授 名	習 位	專 攻 分 野
權 泰 堧	教 授(院 長)	計劃理論, 都市政策學, 計劃法
盧 隆 熙	教 授	地方行政, 都市行政, 環境政策
崔 相 哲	副 教 授	都市計劃史, 地域計劃, 都市計劃
金 安 濟	副 教 授	地域經濟學, 都市財政, 統計調查
林 岡 源	副 教 授(學科長)	交通計劃, 交通工學, 交通政策
金 炯 國	助 教 授	空間構造論, 地域開發, 社會開發論
李 正 典	助 教 授	環境經濟, 資源經濟, 公共投資分析
金 丁 勛	助 教 授	環境工學, 水質汚染, 大氣汚染

II. 教育內容

環境計劃學科 碩士課程의 教科課程은 學部의 教育背景이 比較的 多様な 志願者들로 하여금 計劃의 基本要素를 基礎로하여, 計劃理論, 分析道具와 技法, 計劃模型과 方法論에 關係 綜合科學的 側面에서 폭넓게 教育토록 하여 卒業後에는 研究分野나 實務分野에 從事할 수 있도록 專門知識의 培養을 目標로 하고 있다.

. 教課目的 構成에 있어서는 理論科目과 方法論, 事例研究로서의 政策세미나 課程을 專攻 教育의 進展段階에 따라 적절히 選擇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고, 특히 卒業論文의 提出을 의무화 시켜서 學生들로 하여금 獨自的 研究能力의 培養을 評價받도록 하고 있다.

初創期 教育內容의 特性은 都市 및 地域計劃의 綜合科學的 方法論의 認識이 不足한 狀態에서, Planning Professionalism의 새로운 定立을 위해 一般計劃家((general planner)로서의 均衡있는 知識體系의 教育에 注力하였다.

다음의 <表-2>에서 볼 수 있듯이 環境計劃學科의 教科課程은 創設以後 점진적으로 발전적 개선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1980년에는 本大學院 全教授가 參與하여(연구기간 1年) 本大學院의 中長期發展計劃을 樹立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 教育課程의 全般的인 改編方向과 運用方案이 提示되었으며, 1981년부터 實施하게 된 環境教育에 있어서의 專攻領域別 細分化, 博士學位課程의 新設은 本研究結果의 直接的 所産이다.

博士課程의 教科課程은 理論的으로 볼 때 碩士課程의 專攻領域보다 더 細分化할 것이 必要

<表-2> 1968年度「都市 및 地域計劃學科」의 教科目

學 期	必 須	選 擇
第 1 學 期	計劃論 空間計劃(立地論) 地域經濟學(I) 社會 經濟 統計	地域 計劃 行政 都市社會學 經濟地理學 計劃手法
第 2 學 期	空間計劃(地域計劃) 地域經濟學(II) 團地計劃 및 設計 都市計劃論	環境衛生保健 不動產行政 都市再開發 人口分析
第 3 學 期	土地利用計劃 經濟計劃 交通計劃論 計劃財政	住宅論 公共施設論 農村計劃論 水資源開發論
第 4 學 期	都市計劃演習 地域計劃演習 論 文	

1970年度「都市 및 地域計劃學科」의 教科目

學 期	必 須		選 擇	
	科 目	備 考	科 目	備 考
第 1 學 期	計 劃 理 論 空 間 計 劃(Ⅰ) 地 域 經 濟 學(Ⅰ) 社 會 經 濟 統 計		地 域 計 劃 行 政 都 市 社 會 學 經 濟 地 理 學 計 劃 手 法	
第 2 學 期	空 間 計 劃(Ⅱ) 地 域 經 濟 學(Ⅱ) 團 地 計 劃 및 設 計 都 市 計 劃 論		環 境 衛 生 保 健 不 動 產 行 政 都 市 再 開 發 人 口 分 析	
第 3 學 期	土 地 利 用 計 劃 經 濟 計 劃 交 通 計 劃 論 計 劃 財 政 都 市 計 劃 演 習 地 域 計 劃 演 習	} 都計 } 는 各各 2學 地計 } 點씩만 取得하면 可함	住 宅 論 公 共 施 設 論 農 村 計 劃 論 水 資 源 開 發 論	
第 4 學 期	都 市 計 劃 演 習 地 域 計 劃 演 習			

1980年度 環境計劃學科 教科課程

구분	학기			
	1 학 기	2 학 기	3 학 기	4 학 기
必 須	環 境 體 系 論 計 劃 過 程 論 空 間 構 造 論 統 計 分 析	地 域 經 濟 分 析 土 地 利 用 計 劃 環 境 管 理 論 數 理 計 劃 技 法	計 劃 財 政 都 市 設 計 交 通 計 劃 地 域 計 劃 論 文 研 究	都 市 計 劃 演 習 地 域 計 劃 演 習 論 文 研 究
選 擇	資 源 經 濟 學 社 會 開 發 computer 技 法 都 市 計 劃 史 不 動 產 經 濟	體 系 分 析 技 法 都 市 再 開 發 交 通 工 學 地 域 社 會 開 發 土 地 關 係 公 法	住 宅 問 題(세미나) 團 地 設 計 公 共 施 設 計 劃 環 境 工 學(세미나) 計 劃 理 論(세미나)	

1981年度 環境計劃學科 教科課程

專 攻	1 학 기	2 학 기	3 학 기	4 학 기
地 域 開 發	計 劃 過 程 論 空 間 構 造 分 析 計 量 分 析	地 域 經 濟 學 公 共 投 資 分 析 資 源 經 濟 學 統 計 調 查 論	地 域 計 劃 地 域 社 會 開 發 세미나	地 域 政 策 세미나 卒 業 論 文

都市管理	計劃過程論 空間構造分析 都市計劃史	公共投資分析 都市財政法 計劃	都市再開發세미나 土地利用計劃	都市管理政策 卒業論文
環境管理	計劃過程論 環境工學 環境體系論 컴퓨터技法	公共投資分析 環境汚染測定 統計調查論		環境影響評價세미나 卒業論文
交通計劃	計劃過程論 空間構造分析 컴퓨터技法	公共投資分析 交通計劃 統計調查論	土地利用計劃 交通工學세미나 體系分析技法	卒業論文
都市設計	空間構造分析 都市設計理論 都市設計(I)	環境心理 都市設計方法論 都市設計(II)	住宅論 都市再開發 都市設計(III)	卒業論文
추가 선택과목		經濟分析論 計劃理論세미나	環境心理 都市開發指標	社會開發세미나 住宅論세미나

1983年度 環境計劃學科 教科課程(碩士)

專 攻	1 학 기	2 학 기	3 학 기	4 학 기
地域開發	計劃過程論 空間構造分析 計量分析	地域經濟學 公共投資分析 資源經濟學 統計調查論 I	地域計劃 地域社會開發세미나 論文研究	地域政策세미나 論文研究
都市管理	計劃過程論 空間構造分析 都市計劃史	公共投資分析 都市財政法 計劃	都市再開發세미나 土地利用計劃 論文研究	都市管理政策세미나 論文研究
環境管理	計劃過程論 環境工學 環境體系論 컴퓨터技法	公共投資分析 固形廢棄物 統計調查論 I	大氣汚染管理 水質汚染管理 論文研究	環境影響評價세미나 論文研究
交通計劃	計劃過程論 交通工學 컴퓨터技法	公共投資分析 交通計劃 統計調查論 I	土地利用計劃 體系分析技法 論文研究	交通開發세미나 論文研究
都市設計	近隣住區設計 計劃過程論 都市計劃史	都市設計方法論 地區設計	都市設計 土地利用計劃 交通工學 論文研究	論文研究
추가 선택과목		經濟分析論 計劃理論세미나 統計調查論 II	都市開發指標 論文研究	社會開發세미나 住宅論세미나

하겠으나, 博士課程의 學生數와 關聯하여 教務行政의 變의가 고려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觀點에서 다음 <表-3>에서와 같이 決定하였다. 그러나 博士課程의 教科課程에서도 專攻領域에 따른 教科目的의 均衡을 고려하였는바, 이는 都市計劃專攻, 地域計劃專攻, 環境管理專攻의 3個分野이다.

博士課程學生 指導方針

- ① 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제 1 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박사과정 단체지도교수인 학과장에게 개략적인 연구계획안(Preliminary Study Plan)을 제출한다.
- ② 박사과정학생은 제 2 학기 시작 이전에 다음 사항을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연구계획서
 - 희망전공지도교수
 - 단계적인 교육프로그램(수강계획, 실습, 기타)
- ③ 박사과정학생은 제 4 학기중에 다음 사항을 전공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제목과 구체적인 연구계획
 - 논문지도교수(전공지도교수로서 대체여부)
- ④ 논문제목을 제출한 학생에게는 부지도교수 2명을 추가하여(1인은 타과교수 가능) 3인의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도토록 한다.
- ⑤ 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
 - 가. 학칙에 따라 논문심사위원회를 선정한다(본교의 교수, 부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및 본교외의 사계의 권위자중에서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대학원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이를 심사하되,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둔다).
 - 나. 지도교수의 유고시에는 해당지도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 ⑥ 박사과정 학생은 각과목의 연구실적에 관하여 매학기마다 학과 전교수의 1/2이상 참석하에 공개적으로 발표하여야 하고, 성적평가는 참석교수의 의견을 참작하여 과목담당교수가 실시한다. 단,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교수를 초청, 참석케 할 수

<表-3> 1983年度 環境計劃學科 教科課程(博士)

1 학 기	2 학 기	3 학 기	4 학 기
計劃模型研究 I 都市計劃史研究 都市設計方法研究 交通工學研究 地域經濟學研究 I 地域計劃理論研究 環境生態研究 環境管理模型研究	計劃模型研究 II 計劃法研究 交通計劃研究 住宅政策研究 地域經濟學研究 II 地域財政研究 環境管理研究 I 環境污染測定技法 環境經濟學	計劃理論研究 都市開發研究 土地開發政策 國土空間構造論 社會開發理論 環境管理研究 II 公共投資理論	統計調查方法論 都市計劃特殊研究 地域開發特殊研究 地域開發政策研究 環境管理特殊研究 環境政策研究

있다.

⑦ 논문제목을 제출할 경우에는 전교수의 참석하에 공개적으로 연구계획안을 발표하여야 한다.

⑧ 박사학위논문제출자는 최종심사가 있기 이전에 본논문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국내의 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한다.

III. 卒業生實態

〈表-4〉는 行政大學院「都市 및 地域計劃學科」時節부터 環境計劃學科로 改編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年度別 卒業生 輩出狀況을 보인 것이다. 行政大學院 第10回 卒業生으로서「都市 및 地域計劃學科」의 첫회 卒業生을 배출한 以來 1974년까지「都市 및 地域計劃學科」의 卒業生數는 總 77名이다.

1975년부터 環境大學院으로서 卒業生이 輩出되었으며 1983學年度까지 總 175名이 배출되어, 그동안「都市 및 地域計劃學科」의 卒業生을 包含하여 總 252名의 都市計劃學碩士를 배출하였다.

〈表-5〉는「都市 및 地域計劃學科」를 包含하여 現在까지 環境大學院 全體 卒業生의 社會進出現況을 보인 것이다. 1983年 3月까지 本大學院에서 輩出한 都市計劃學碩士 및 造景學碩士는 363名으로서 그동안 碩士學位를 取得하지 못한 修了者 및 中退者 83名을 包含하여 總在

〈表-4〉 環境計劃學科 卒業生 統計

구 분 졸업연도	행 정 대 학 원		환 경 대 학 원		비 고
	회	졸업자수	회	졸업자수	
1 9 7 0	10	11명			
1 9 7 1	11	14			
1 9 7 2	12	9			
1 9 7 3	13	20			
1 9 7 4	14	23			
1 9 7 5			1	23명	
1 9 7 6			2	13	
1 9 7 7			3	17	
1 9 7 8			4	20	
1 9 7 9			5	17	
1 9 8 0			6	17	
1 9 8 1			7	26	
1 9 8 2			8	18	
1 9 8 3			9	24*	
計		77명		175명	

註：(*) 2월 졸업생만 포함.

〈表-5〉 環境大學院 卒業生 就業現況

(1983.3 현재)

區分 職場別		碩士學位 取得者 (A)	修了者 中退者 (B)	합 계 (A+B)	總學位取得者에 대한 比率 (%) $\frac{A}{363} \times 100$	職場이 확인된 學位 取得者에 대한 比率 $\frac{A}{250} \times 100$
		大學	서울 大學 校	8	2	10
	서울 所在 大學(校)	15	1	16	4.1	6.0
	地方 大學(校)	52	2	54	14.4	20.8
研究所	國土 開發 院	30	7	37	8.3	12.0
	其他 研究 所	22	3	25	6.1	8.8
公務員	서울 市	12	4	16	3.3	4.8
	建設 部	8	6	14	2.2	3.2
	內務 部	17	13	30	4.7	6.8
	其他	8	9	17	2.2	3.2
公 社	4	10	14	1.1	1.6	
海外 留學	35	6	41	9.6	14.0	
企 業 體	39	20	59	10.7	15.6	
小 計		250	83	333	68.9	100.0
確 認 不 明		113	—	113	31.1	—
總 計		363	83	446	100.0	—

籍學生 446名에 대하여 卒業生의 比率은 81.4%를 나타낸다.

職場別로 就業現況은 앞의 〈表-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大學校에 80名, 研究機關에 62名, 公務員 77名, 政府公社 14名, 海外留學 41名, 一般企業體 59名으로 總 333名이 確認되었는데, 이는 總在籍者數의 74.7%에 달한다. 또 就業現況을 確認할 수 없는 卒業生은 113名으로 나타났다.

環境大學院 卒業生의 就業特性을 보면 初創期부터 이제까지는 大學校敎職에 대한 進出이 많았으며 最近에는 研究所에의 就業이 늘고 있는 경향이다. 이것은 그동안 全國各大學에 環境分野에 관한 教育課程의 新設이 활발하였고, 이를 위한 敎授需要가 大部分 本大學院 卒業生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研究機關으로의 卒業生 進出이 늘고 있는 것은 그동안 都市化, 産業化에 따른 社會問題에 대한 政策研究의 認識이 높아지고, 이 分野에 관한 政策研究機關의 機能이 增大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公務員 職位分類體系에 있어서 都市職 및 環境職이 導入된다면 公務員에의 進出이 더욱 擴大될 것으로 展望된다.

IV. 將來展望

우리나라는 지난 4半世紀 동안에 成功的인 經濟開發計劃에 힘입어 産業化와 都市化가 加

速되었고, 그 부작용으로서 環境問題, 都市問題가 날로 社會問題化 되고 있다.

社會發展에 따른 이처럼 새로운 問題의 挑戰은 보다 專門的인 知識과 研究開發 그리고 行政管理能力의 培養을 요구하게 되었다. 環境計劃에 관한 教育課程은 일찍부터 産業化·都市化 過程을 이룩한 西歐社會의 高等教育機關에서 確立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國內外的인 需要를 바탕으로 環境教育課程이 本大學院에 의해 처음으로 導入되었다. 本大學院이 卒業生을 輩出하기 始作한 것은 겨우 10餘年에 不過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都市 및 環境分野에 관한 教育·研究 및 政策開發에 대한 社會的 공헌은 실로 至大하다고 評價된다.

1983年 現在 全國의으로 學部課程에서 都市計劃·工學, 造景, 環境, 地域開發과 관련된 教育課程을 設置한 學科는 40個學科로 모집정원은 무려 2,320名에 달한다. 4年制 正規大學課程 以外에도 專門大學에 設置된 關聯學科는 8個學科(모집정원 512名)에 達하고, 大學院水準에는 本大學院을 包含하여 4個大學院(募集定員은 本大學院 90名, 漢陽大 環境科學大學院 85名, 嶺南大 環境大學院 100名, 弘益大 環境大學院 35名)에 達하여 그동안 이 分野의 專門教育에 대한 社會的 需要가 대단히 切實하였음을 間接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環境計劃의 教育方向은 産業化·都市化過程에서 派生되는 諸問題를 人間環境과 關聯시켜 폭넓게, 專門的으로 檢討하고 現象의 理解를 바탕으로 未來의 問題를 豫測하고 또 解決方案을 提示하는 데 必要한 專門知識을 教育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環境計劃에 관한 教育目標을 보다 效果의으로 達成하기 위하여 本大學院은 敎科課程 및 教育方法의 改善을 爲하여 계속 注力하고 있다. 西歐社會가 거의 한世紀동안에 定着시키고 있는 學問領域을 되도록 빠른 期間內에 消化시키고 發展시켜서 國內外的으로 새로운 社會變化에 先導的으로 對應키 위해서이다.

이것은 앞으로 社會發展에 따른 環境計劃에 대한 高等教育的 要求가 量的으로나 質的으로 계속 增大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質的으로는 보다 高度화된 專門人力이 要求되고 그 對象으로는 學界 뿐만 아니라 研究機關과 行政機關에서도 博士水準의 人力需要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제는 環境計劃에 관한 教育課程에 있어서 第2段階의 도약이 必要한 시기이다. 이와 관련하여 博士課程의 運營은 環境教育의 새로운 계기로서 앞으로 至大한 觀心과 國家의 次元에서 育成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全國各大學에서 急速하게 設置한 環境關聯 教育課程은 量的인 팽창에 비하여 質的인 充實을 등한시한 관계로 環境教育의 再整備가 必要한 時期이다.

即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의 環境教育分野는 量的인 需要보다는 質的인 要求가 더욱 重視되어야 한다. 이러한 時點에서 本大學院의 博士課程은 앞으로 全國의 環境教育關聯學科의 敎課內容과 教育方法의 改革을 推進하는 牽引車로서의 使命을 갖고 있다. 이것은 本大學院이

初創期에 우리社會에 環境教育을 처음으로 普及한 업적 以上の 重大한 課業이다.

이와 관련하여 環境教育의 專門化는 앞으로 더욱 重視될 것이다. 本大學院은 이미 專攻 領域別 教育方針을 決定한 바 있으나, 앞으로의 專攻教育需要에 對備하여 制度的 補強이 必要하다. 그 方向은 1次的으로 本大學院 碩士課程에 있어서 環境設計分野와 環境管理分野를 獨立學科로 設置하여 專攻教育의 폭과 깊이를 더욱 強化해 나가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서울大學校內에서 關聯分野의(學部·碩士·博士) 教育課程을 統合的으로 運營할 수 있는, 即 環境部門의 教育課程을 垂直的으로나 水平的으로 有機性을 強化하여 教育的 相乘效果를 높일 수 있는 體制로 發展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